

# 참진리, 참복음, 참사랑 -복음으로 여는 요한일서- 시편 2:7, 요한일서 5:1

정윤돈 목사님

- \* 시2:7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 \* 요일5: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의미있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후대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라와 가정과 기문에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걸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구약성경 전체를 외울만큼 깊이 묵상했는데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목사가 되어도 복음을 깨닫는 게 쉽지 않다. 설교를 잘 해도 전도 못하시는 분이 많다. 훈련을 계속 시켜줘야 한다. 훈련을 위해서는 신학적인 내용도 필요하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5천 종족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 활용하시기 바란다. 이 내용은 단순히 메시이탄생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성삼위’ 하나님만 말하면 안 된다. 정확히는 ‘삼위일체’가 맞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새가족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성삼위일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게 진리다. 참 진리를 정확히 알 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다. 참 진리와 참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참 사랑이 될 수 있다. 제가 지난 주 일본을 다녀왔다. 제가 갔던 곳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던 곳이었다.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에서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카모토 료마는 전쟁이 나고 속국되게 한 사람이다. 사카모토 료마는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참 진리, 참 평화, 참 사랑을 추구하였던 인물이어서 일본에서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카모토 료마의 영향을 받은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사람들은 군국주의, 국수주의적인 나라 사랑을 하였고 그 결과로 일본은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에는 원자폭탄을 맞아야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진리, 참 복음에서 나온 참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사랑해야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 우선순위가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신다. 우리가 원니스되면 후대를 리더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다. 제가 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술, 담배를 다 끊

도록 만들었는데 이제는 중독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냥 계속 하라고 한다. 이게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 예수에 중독되어야 한다. 중독에서 예수로 치유된 사람은 내 집, 내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 분들을 돕고 깨워주는 전도제자가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이렇게 평생 복음을 위해 결단하고 산 사람이 요한이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 1.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요한은 어부로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는 동업자에서 세계복음화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평생 동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의 형제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다.

(2) 요한도 베드로처럼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도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아너게’란 별명을 붙여 주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로 보건대 요한은 쉽게 큰 소리를 지르는 급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는데 하도 목소리가 크니까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줬다. 우리가 요한의 책들을 볼 때 요한은 부드러운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었다.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생 변화시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신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은혜받을 기회를 바란다. 저는 ‘저 분 때문에 우리 교단과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는 분들을 본다. 시대시대마다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3) 또한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던 세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릴 때와 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제자만 동행하도록 허락하셨다. 선택받은 것이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기 바란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따로 선택받는 사람이 돼라.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아라. 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7절에는 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갓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라”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을 때 이들은 졸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나중에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다. 교회에서 줄다가 눈 뜨는데 10년 걸리는 분들도 많다. 앉아서 줄더라도 여기 계시면 세계를 살리는 중직자가 될 것이다.

(4) 또한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팔려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던 제자이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 장면을 보며 저는 당시 요한은 그 말의 의미도 몰랐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 이, 삼서를 쓰는 제자가 되었다.

(5) 그리고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인 마리아를 평생 봉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또 그 제자(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니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남의 어머니를 평생 모신 것이다.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요한 사도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에베소에서 밧모 섬에 유배되었다. 거기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밧모 섬에 끌려갔다. 전래에 의하면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었다고 전해진다. 끝까지 마리아를 모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밋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2.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신 ‘참진리, 참복음, 참사랑’에 대한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에게 참사랑에 대한 미션을 강조해서 주고 있다.

(1)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강조법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다니며 선교사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전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너무 열정적이어서 선교 기간 내내 메시지만 생각하시더라.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이 팀이 하나가 되면 세계복음화된다. 교회 안에서 복음때문에 사랑스러운 팀을 만드시기 바란다. 나도 복음을 사랑하고 너도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팀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팀이다. 마약과 친구인 사람들은 관계를 다 끊는다. 마약을 위해 모두와 원수가 된다. 그런 사랑은 가짜다. 지속할 수 없다.

(2)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살아있지만 사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교회와 선교를 사랑하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이유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저희 어머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몇 억씩 밋지고 살았다. 돈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란다.

(3)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개인과 형제사랑도 있었지만 교회와 지역현장에서 사랑을 베풀어야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홀룡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게 성령충만한 사람이다.

(4) 성경 중에서 사랑의 원리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다.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도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분이 태어난 게 크리스마스다.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예수사랑, 참사랑을 전하시기 바란다. 사실 사랑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영지주의적인 지식이 아닌 참진리와 참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진리의 지식을 믿게 된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고 전도, 선교의 소중함이 믿어지는 건 이성이 아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른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거저 받았으니 거

저 주라고 하셨다.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참진리’와 ‘참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도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마약치유도 복음으로만 된다. 그게 참사랑이다. 그렇다면 요한일서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진리와 참복음은 무엇일까? ① 첫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 상 하나이시며, 영원히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다. 구원과 세례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임한다. ②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땅에 몸으로 오셔야 고통을 당하고 번제물이 될 수 있고 속죄물이 될 수 있었다.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채찍과 찢람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 본질이 사랑이다. 누구를 사랑할까? 나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어서 죄를 티끌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당신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지적할 수 없다. 우리는 돕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 요나도 정반대로 갔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깨달은 만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다 살려야 한다.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을 담당하시기 바란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란다. ③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이다.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신앙과 삶의 기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는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쁘고 기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 이게 기준이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는데 성경은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한다. ④ 또 진리는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하셨다. 진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자신 있게 증거하시기 바란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해라. 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이다. 7여정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오늘은 7여정 중 10가지 비밀의 단어들 설명 드리겠다. ① 독립.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어디에 있는지 살아남으라. ② 사실.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라. ③ 역발상. 가짜인 나의 틀을 깨고 진짜인 반대쪽을 보라. ④ 시너지. 모든 것에 대하여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라. ⑤ 위기. 위기 속에서 반드시 해답과 응답의 기회가 있다. ⑥ 무경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리라. ⑦ 재창조.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라. ⑧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해 가게 된다. ⑨ Nobody 현장. Nobody 현장 살리는 콘텐츠를 찾으면 Everybody 문화가 되리라. ⑩ 절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것을 주시리라. 중요한 때에 이 단어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참진리, 참복음 안에서 참사랑의 사람이 되어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세계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사와 사명자로 인정하시고 공송하시고 함께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후대들이 정치, 경제, 문화서밋으로 쓰임받는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